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뜻을 정한 다니엘 성경: 다니엘 1장8-17절

Tag:제자도,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1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

을 깨달아 알더라 (단1:8-17)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의 엘리트 출신이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아 왕의 내시가 되었다.

비록 망해버린 나라의 포로 신세이지만,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독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은 분명한 의지와 전략을 갖추고 주도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의미이다.

분명한 의지의 요점은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삼겠다는 것이다.

당시 다니엘에게는 직속상관이 있었고, 그 위에 환관장(아스부나스)이 있었고, 그 위에 왕(느부갓네살)이 있었다.

다니엘은 당시 내시 견습생으로 내시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왕은 내시의 소양과 실력을 위해서 각별한 배려를 하였다. 왕의 입장에서 최고의 배려는 그가 먹는 음식과 음료를 견습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각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선발했고, 최고수준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최고수준의 대우를 한다는 의미에서 왕의 진미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특별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지시를 거부하려는 뜻을 세웠다.

왜냐면 그 왕의 진미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고기와 술은 사실 우상에게 제사드려진 후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여기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신앙상의 이유로 음식을 거부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였다고 주장하는데, 터무니없는 말이다. 다니엘은 채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지는 않았다. 어느 누구도 채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 하나님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용하셨다. 채식이 어떤 경우에는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채식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채식은 건강상 필요한 것이지만, 신앙이나 경건이나 하나님 섬기는 예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예절을 왕에 대한 예절 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긴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보다 더 우선시 한 것이다. 충분히 사형에 해당하는 불순종이었고, 다니엘도 이 일에 목숨까지 걸었다.

이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처세술은 더더욱 아니다.

순전히 하나님께 대한 예절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 결과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왜일까?

다니엘은 이 일을 추진할 때 과격하게 추진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매사에 분명하고 강직하고 정직하고, 사리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했다. (일의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일당 챙기는일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둔다면 분명히 일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모든 일에 매우 중요하다.) 다만 하나님께 대한 예절 만큼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예절 이외의 것은 철저하게 왕의 명령에 따라 나랏일에 충성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의 직속상관이나 환관장이나 왕이 다니엘의 이런 성품을 귀하게 여겼다.

왜냐면 왕으로서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런 충성으로 자신에게도 두 번째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 당시 세계관으로는 각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때문에 자기 나라도 지켜주실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당시에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되었고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공격하였다. 그럴 때마다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 대한 예절을 지키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편을 들어주셨다.

17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자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더하셨다. 내시로서는 더 없이 필요한 은사가 아닐 수 없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과 네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식과 지혜를 갖추게 되었으니, 왕으로서 는 당연히 중요 요직을 맡기게 되었다.

또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성경에서는 환상과 꿈에 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 받는 자만 그 꿈의 의미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마치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는 자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상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경

건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아직도 다니엘의 계시와 해석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물론 거짓선지자들은 이런 은사를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예절을 다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